


공동체 소식



연중 제33주일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11월은 '위령의 달' 입니다.

- 위령의 날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평화의 안식을 얻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묘지를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전대사의 은총을 청합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An Extraordinary Jubilee Year of Mercy) 마감

- 기간: Dec.8, 2015 - Nov.20, 2016
- 내용: 캔사스 대교구 홈페이지 참조 (www.archkck.org/mercy)

그리스도 왕 대축일(추수 감사미사)

- '연중 제34주일'(11/20)은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 세상 끝날에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한편 믿는 이들 안에서는 이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추수 감사절' 본 날은 11/24(목)이지만, 이날 대축일과 더불어 추수감사의 의미를 더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소공동체 모임

- 내용: 소공동체 봉사자인 반장의 주요임무는 반소속 가정들과의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것 입니다. 반별로 반모임 날짜를 정하고, 반별 형편에 따라 모임을 진행바랍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11/19(토) 오전 11:30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329	220	167	436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차민서 임마누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이원준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김화년 요안나	김명은 안젤라
차 주	최은미 아녜스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김수희, 김수연, 최선윤

헌금 봉사자

금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06	70명	300불	450불
총 3 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0불, 총합계: 6,1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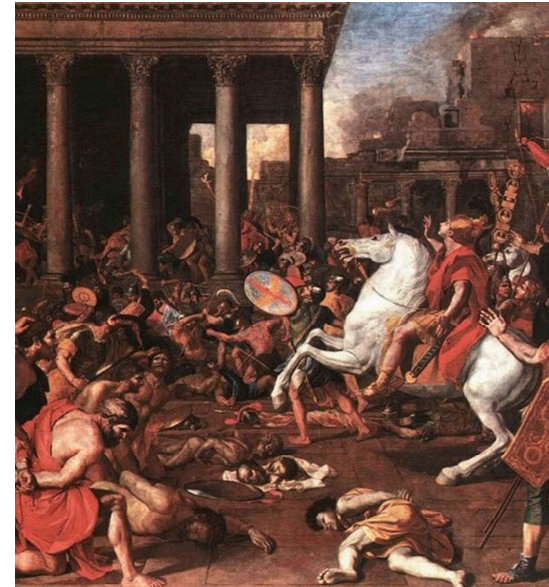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의 살아 있는 성전에 온 인류를 모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변하는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 하느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더라도 인내로써 생명을 얻도록 합시다.

성화해설

성전 파괴 (니콜라스 푸생, 1637년, 유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오스트리아)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7-19) 하느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반대와 미움을 받겠지만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9-20
<너희에게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말씀입니다. 3,7-12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5-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쉐 마

늘 깨어 준비하는 삶



이두매아 출신으로 유다의 임금인 헤로데 대왕은 유다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기원전 20년경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헤로데는 솔로몬 성전을 능가할 계획으로 성전이 있던 산 정상에 덮을 정도로 큰 성전 지대를 건설하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원전 4년 헤로데가 죽음을 맞은 뒤에도 공사는 계속되어 예수님 시대를 지나 기원후 64년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이 보았던 성전도 여전히 증축 중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 말씀처럼 기원후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은 티토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오늘날 로마를 방문하면 포로 로마노 입구에 티토의 개선문이 있는데, 개선문 안쪽 벽면에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로마 병사들이 잘 부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서의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이 시대의 분위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복음서를 저술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된 뒤였기 때문에 루카가 전하는 이야기는 매우 생생하게 들립니다. 실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듯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대립도 커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도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점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복음서 마지막에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서의 종말론적 분위기는 오늘 1독서에서 봉독한 말라키 예언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말라키 예언자는 역시 이제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화덕처럼 불붙는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인데, 그 심판은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모두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의인들, 곧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치유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항상 종말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때와 시간을 아무도 모르기에 언제나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종종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말을 잘못 이해해서 불안에 떨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호도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교리로 넘쳐나는 지금 독서와 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못한 채 앉아있지 말고, 묵묵히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연중 시기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고, 이내 대림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례의 주제가 종말에 집중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종말, 곧 완성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왔을 때 거만하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로 모두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합시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주님의 날’을 선포한 요엘 예언자

주님께서 요엘에게 말씀을 내렸습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많은 백성이 고초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 메뚜기떼가 기승을 부리고 가뭄까지 겹쳐 곡식이 고갈되어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외적까지 쳐들어와 백성들은 큰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물과 제주가 동이 나서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의식까지도 못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제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엘 1,1-14

요엘은 메뚜기떼의 습격을 통해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날이 다가옴’을 알리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결정적인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의 원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요엘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하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엘 2,1-12

요엘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재앙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된다고 했

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회개가 외적일 뿐 아니라 진실한 회개이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무엇을 찢어야 한다고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엘 2,13

요엘이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에즈라의 개혁 이후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체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재지변으로 많은 나라가 피해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러한 자연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옛날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생명을 얻는 방법

-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 분노하여도
- 눈물이 차올라도
- 그 자리에 기다리는 것.
- 포기하고
-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
- 생명은 결국
-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9)

- 임의준 신부 3